

신체와 정동: 1930년대 프로문학의 문화정치적 역학

-임화와 김남천을 중심으로-

최병구*

|| 차례 ||

- I. 카프(KAPF)와 정동
- II. '생산양식'의 문화정치적 의미
- III. 인쇄 미디어와 투옥된 신체
- IV. 맺는 말

【국문초록】

이 글은 1930년대 초반 카프를 신체와 정동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재구성하고자 했다. 특히 1930년 일본에서 귀국한 임화와 김남천을 중심으로 불세비키화의 논리와 정념의 정치성이 결합되는 양상에 주목했다. 1929년 임화와 김남천은 일본에서 '무산자사' 활동을 하며 공산당 재건 운동에 참여했다. 1931년 김남천은 카프 1차 검거 사건에 휘말려 투옥되고, 1933년 임화와 김남천은 '물 논쟁'을 벌이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정치적 사건을 겪으며 두 작가는 정동되는 신체에 주목했다. 임화는 시 창작을 통해 생산양식의 발전이 초래한 삶과 변화된 인간의 정념을 관찰했으며, 김남천은 소설 『물』에서 고깃덩어리로 전락한 인간을 묘사하며 정동되는 신체의 중요성을 드러냈다. 또한 두 사람은 당대의 인쇄 미디어에 대한 인식과 비평을 공유했다. 식민 권력의 사회주의 탄압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자기의 신체로부터 찾았던 것이다. 1930년대 초반 프로문학은 주체의 감성에 주목했던 1920년대의 흐름을 공유하면서도, 구체적인 삶과 접하는 신체를 통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원

해 법과 미디어의 문제를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주제어: 프로문학, 정동, 카프, 임화, 김남천, 신체, 문화정치, '물 논쟁'

I. 카프(KAPF)와 정동

식민지 시기 사회주의 문화정치는 기계와 미디어에 대한 감각을 공유하며 이루어졌다. 기계에 대한 감각이란 라디오, 영사기, 철도, 항공기 등과 같은 근대의 발명품에 대한 의식을 지시하며, 미디어란 신문·잡지 등 인쇄 미디어부터 영화·연극 등과 같은 기술 미디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근대 기술의 발전으로 마련된 기계를 사용한 새로운 형태의 의사소통방식이 초래한 삶의 변동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주의 문화정치가 구성된 것이다.¹⁾

식민지 시기 카프는 사회주의 문화정치를 전위에서 수행하는 조직이자 했다. 문화단체로서 카프의 성격은 문학과 영화, 연극, 미술을 매개하며 형성되었으며, 근대 미디어와 법 제도에 대한 성찰을 통해 진전되었다. 특히 카프의 이념적 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1930년대 초반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신간회 해산 이후 카프는 볼셰비키의 깃발을 들었지만 동시에 1차 검거 사건으로 크게 휘청거렸다. 이 무렵 카프의 성격은 대략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구성되었다.

- 1) 신간회 해체 이후 사회주의 운동의 분화
- 2) 1931년 카프 기술부 설치-영화부, 연극부, 문학부, 미술부 등
- 3) 만주사변 등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식민 권력의 사회주의 탄압 본격화

1) 최병구, 「근대 미디어와 사회주의 문화정치」, 『정신문화연구』 148, 2017.

2)의 사실은 카프가 근대 과학과 기술의 도구를 사용하여 전위적 운동을 추진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즉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기계를 만들고 이를 활용하여 대중성을 획득하고자 한 것이다. 가령 1920년대 초반에서 1930년대 중반까지 존재했던 프로-소인극은 대표적인 사례²⁾이며, 이 글이 다루고자 하는 임화가 문학, 영화, 연극 등에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가능하다. 1)은 1930년대 국제 사회주의 조직운동의 흐름을 따라 조선의 사회주의자들도 민족주의 좌파 세력과 결별하고 독자적 노선을 천명하게 되는 맥락을 지시한다. 카프의 맹원들도 이러한 흐름에 합류했다. 그런데 문제는 3)이 보여주듯 식민지 현실에서 러시아나 일본의 사회주의 조직과 같은 운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상의 논의는 1930년대 초반의 카프의 논객들이 운동가로서의 지향과 현실적 제약의 충돌에 직면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임화가 작품 생산을 통제했던 지도부의 방침을 비판한 것은 이러한 상황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우리들은 그 통제와 방침과 규율이 우리들의 작가의 작품생산의 조직화하는 곳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다는 것이 최대의 특징인 것이다. <...> 카프에

2) 이승희의 논의에 따르면 “프로-소인극은 선전 미디어로서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면서 기금을 마련해주는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즉 기술을 활용한 무대 장치를 가지고 거리를 이동하여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활동 자금을 모금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1930년대 프로-소인극은 신문에서는 사라져갔으나 보다 대중들과 밀착하여 존재했다. (이승희, 『프로-소인극, 정치적 수행성과 그 기억』, 『대동문화연구』 64, 2008을 참조) 카프의 불세비키화 테제와 기술의 문제가 맺고 있는 상관성은 본격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일단 여기서는 1930년대 카프의 수행성을 구성했던 하나의 힘으로서 기술에 대한 감각을 제한하는 것으로 논의를 제한하고자 한다.

있어서 결정적인 이 전향을 문학 부문에 있어서 작가들에 대한 과중한 통제와
요구와 지나치게 급격히 이 정책을 수행하려 한 것은 우리 카프 지도부의 초
조의 과실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³⁾

이러한 임화의 비판은 그해 발생한 1차 검거사건을 목격하며 현실 정치
의 탄압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식민지 시기 임화
의 시선에는 낭만적 시각과 조직 전위에 대한 인식이 공존하고 있었다. 보
통 임화가 『우리 오빠와 화로』(1929)와 같은 자기의 시를 낭만적 색채가
강하다고 비판한 점을 근거로, 임화에게 있어서 낭만성의 위치는 해산 이
후에야 등장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임화의 두 가지 측면
을 종합하여 낭만성이 가지는 전위성을 논의의 전면에 내세운다. 임화에게
낭만적 감성이 부정되지 않고 식민지 시기 내내 존재했으며 그러한 성향이
임화의 전위적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다.⁴⁾

이 글은 임화에 대한 최근의 연구 성과에 공감하면서도, 한국문학사에서
고정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낭만주의와 낭만을 분리하는 것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다시 말해 임화 문학에 나타난 낭
만성의 문제의식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려는 것이
다. 1930년대 초반 카프 문인들이 마주한 국면은 힘들의 마주침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맥락이 각각 하나의 힘을 이룬다. 먼저
1)과 3)은 반대방향으로 작용하지만, 사회주의 지식인 개인의 신체와 정념

3) 임화, 『1931년간의 카프예술운동의 정황』, 『중외일보』, 1931.12.7.~12.13; 신두원 편,
『임화문학전집 4』, 소명출판, 2009, p.180. 이하 임화 전집을 인용할 경우에는 전집의
권수와 면수만을 표기하되, 원문의 출처와 날짜를 밝히도록 하겠다.

4) 임화 문학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낭만성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최은혜, 『저변화된
낭만, 전면화된 사실-1920년대 후반~30년대 중반 임화 평론에 나타난 낭만성 재검토
』, 『우리어문연구』 51, 2016.를 참조할 수 있다.

을 중심에 두고 있다. 조직의 지침 혹은 일본 제국의 검열이라는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정동되는 신체가 때로는 모순적으로 보이는 서술을 하게 만든다.

2)는 1)과 3)이 충돌하는 현실 문화의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활용한 카프의 대응 방식 변화를 지시한다. 1930년대 카프 논객들이 발표했던 인쇄 미디어에 대한 일련의 글들은 자본주의 상품 시장에서 문학과 정치의 구성 방식에 대한 인식과 거기에 비판적으로 개입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20세기 초 사회주의의 역사에서 매체는 의식의 기록이자 신념을 추동하는 매개물이었다. 운동가들은 현실에 대한 감성을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 조직하고, 개념을 일상으로 바꾼다. 다시 말해 운동가들은 착취·혁명·계급 등과 같은 개념들은 매체를 통과하며 일상으로 흡수되기를 희망한다.⁵⁾ 이런 점에서 1930년대 미디어 환경이란 신문·잡지에 의해 만들어지는 정보와 지식의 유통방식과 일본 경찰의 미디어 통제와 구금까지를 총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1)과 3)의 힘이 창출되고 충돌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이 주목하는 것은 각기 다른 힘들이 마주치는 신체와 그로부터 생겨나는 정동이다. 하나의 신체는 주변 힘들의 마주침 속에서 앞으로 나아간다. 정동이란 하나로 정의되지 않고 무한히 다수적인 되풀이로, 힘을 둘러싼 ‘관계’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 신체가 마주하는 힘의 대결이 인간을 어떻게 정동하는지를 포착해야 한다.⁶⁾ 정동에 대한 연구는 이념으로부터의 퇴보가 아니라 이념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법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프로문학 연구에서 감성 혹은 욕망의 문제는 하나

5) 레지 드브레, 『매체론으로 본 사회주의의 역사』, 『뉴레프트리뷰』, 길, 2009 참조.

6) 신체와 정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최성희 외 역, 『정동 이론』, 갈무리, 2015를 참조.

의 경향을 형성할 만큼 중요한 것이었으며, 이 시기 감성 연구의 공통된 문제의식은 식민지 시기 프로문학 작가들의 이념 지향을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시각을 인간의 감성으로부터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⁷⁾ 이는 고정된 이념 대신에 주체의 감성을 내세움으로써 조금 더 현실에 다가가려는 시도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후 현재까지 이어진 프로문학 과 감성의 문제를 다룬 연구들이 감성과 미학의 문제에 탐구할수록 프로문학의 정치성이 가지는 복잡성과 그 재현방식에 대한 논의가 불분명해진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전 시대의 연구에서 카프가 가장 빛을 발하는 시기로 평가된 1930년대 초중반 프로문학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사실도 기록해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감성 연구가 포착하지 못한 지점을 정동의 개념으로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감성이 주체의 내면과 그로부터 발현되는 의지나 감성의 성격을 문제 삼는 것이라면, 정동은 감정을 둘러싸고 있는 힘들의 관계와 신체의 움직임에 질문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동보다 감성이 사회적인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정동은 신체의 움직임과 이동을 포착하기 위한 감정의 역동성을 포착하기 위한 개념이다.⁸⁾ 그래서 정동을 문제 삼는 작업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힘들의 관계 속에서 감성이 신체 안에 축적되고 발현되는 과정을 질문하는 것이다. 이는 이념적 보편성을 더 사소하고 낮은 것들과 대면시킴으로써 우리의 삶에 육박하는 진실로 재인식하려는 목적에

7) “프로문학의 ‘감성 구조’란 이처럼 프로문학 텍스트가 의식적으로 선별한 이념이 아니라 그렇게 발화된 이념의 자기완결성·자기동일성을 무의식적·구조적으로 제한하는 텍스트 내부의 이질적 벡터를 뜻한다.”(손유경, 『프로문학의 감성구조』, 소명출판, 2012, p.5.)는 서문은, 이 무렵 진행된 프로문학과 감성이라는 주제의 문제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8) 감성과 정동의 차이에 대해서는 질 들뢰즈 외, 서창현 외 역, 『비물질노동과 다중』, 갈무리, 2014, 1부 논의를 참고.

서 비롯된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930년 초반 임화와 김남천에 주목한다. 임화와 김남천에 대한 수많은 선행연구가 있지만 주로 일제 말기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1930년대 초반을 대상으로는 ‘물 논쟁’을 다룬 것이 대다수이다. 그도 그럴 것이 1930년대 초반은 카프의 몰락이 가시화되는 시기로서 그 자체의 활동이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곧 1930년대 초반 카프가 단일한 대오로 구축되지 않았음을 지시한다. 정치와 문화가 쉽게 접점을 형성하기 어려웠던 1930년대 초반, 이에 대한 임화와 김남천의 대응방식을 살펴봄으로써, 1930년대 카프 연구를 위한 입각점을 새롭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II. ‘생산양식’의 문화정치적 의미

㉠ 1930년대 초반 사회주의 진영은 신간회 (비)해소 논쟁으로 시끄러웠다. 민족진영과의 합작노선을 통한 식민지 사회(주의)운동을 목표로 1927년 설립되었던 신간회는, 격렬한 논쟁 끝에 1931년 5월 16일 자진해소를 결정하게 된다.⁹⁾ ‘신간회’해소는 사회주의 운동의 재편과 그와 연계된 카프의 운동 방식을 변경시켰다. 1931년 카프 2차 방향전환은 신간회 해소의 정국에서 발표된 사회주의 진영의 독자적인 정치화를 반영한 것이었다.

신간회가 존재했던 1927년부터 1931년까지는 카프 1차 방향전환에서 1차 검거사건까지의 시기와 겹친다. 이 시간 동안 임화는 다다이스트로 문단에 데뷔하여 박영희와 만나고 이후 독일하여 사회주의 조직운동에 가담

9) 심지연,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인식과 논리』, 백산서당, 2015.

하였다. 그 중에서 도일 후 임화가 가담했던 무산자사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 1927년 도쿄에서 결성된 '제3전선사'는, 그 해 11월 해산하여 카프 도쿄지부를 결성한 뒤 기관지 『예술운동』을 창간한다. 1929년 1월 ML과 중심의 고려공산청년회가 결성되었으며, 1929년 5월 합법적 출판사 '무산자사'를 조직하고 잡지 『무산자』를 창간했다. 11월에는 카프 도쿄지부가 해산되고 임화, 김남천, 안막 등은 무산자사에 합류했다.¹⁰⁾ 그러니까 임화가 합류한 무산자사란 1차 방향전환을 주도한 제3전선사에 기원을 둔 사회주의 조직 운동 단체로 이념적 성격이 명확했으며, 여기서 임화가 배운 문학예술에 대한 감각도 당과 조직에 근거한 정치 운동의 논리에 서 있는 것이었다.¹¹⁾ 그리고 1930년을 전후하여 임화는 국내로 들어오게 된다.

이 무렵 카프 경성지부는 『조선문예』(1929)를 발간했다. 이 잡지는 라디오, 영화 등과 같은 근대의 기술문화가 인간의 삶과 인식능력을 어떻게 바꾸었으며, 또 그것이 문학예술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임화, 최승일, 김기진, 박영희 등이 참여했다.¹²⁾ 『무산자』와는 이념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사회주의 조직운동을 경험한 임화는 왜, 경성지부 맹원들과 『조선문예』에 참여했을까? 조

10) 고영란, 김미정 역, 『전후라는 이데올로기』, 현실문화, 2013, p.104.

11) 다음과 같은 김남천의 언급을 참고할 수 있다. “동경 있는 동안의 활동은 조선의 예술운동에 대하여서보다도 ‘무산자’사원으로서의 것이 중심적이었음은 다시 말하지 않아도 자명한 일이다. 조선의 예술운동은 실천 속에 몸을 안 둔 해외에서 지도한다든가 또는 ‘카프’의 차륜(車輪)을 사실적으로 운반하지 못하는 분자가 중심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허구(虛構)한 이론이기 때문이다. 동경 가 있는 동안의 빈궁한 합숙 생활은 공생활과 사생활의 모순을 덜어주는데 껍이나 커다란 효과를 주었을 것이다.” (김남천, 『임화에 관하여』, 『조선일보』, 1933.7.23.; 정호용·손정수 편, 『김남천 전집』, 박이정, 2000, pp.39~40. 이하 김남천 글의 인용은 원출처와 전집의 권수, 면수만 표기하도록 하겠다.)

12) 『조선문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병구, 앞의 논문, 2장 논의를 참조.

직¹³⁾과 감성이라는 두 항목을 횡단하는 임화의 논리는 어디서부터 설명되어야 할까.

이를 파악하기 위한 매개가 ‘생산양식’ 혹은 ‘생산력’ 개념이다. 1920년대 후반부터 『조선지광』, 『신계단』 등의 매체에는 과학적 지식과 생산력 개념에 바탕을 둔 유물론적 기사가 유통되기 시작했다. 1920년대 후반 『조선지광』의 유물논쟁은 사회주의 이론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시켰으며, 이는 곧 당대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에 토대를 둔 분석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¹⁴⁾ 임화는 주요제국의 공업생산지수의 숫자를 제시하며, “이 숫자는 공황이 의심할 일분의 여지도 없이 심화”¹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한다. 생산력을 기준으로 현실의 경제상황을 분석해내고 있는 것이다. 1930년을 전후한 시기 과학적 사회주의의 강화라는 논리는 수치의 제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¹⁶⁾

당대의 사회주의 운동가라면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 현실 분석을 하고 이를 토대로 혁명에의 목표를 제시했을지 모른다. 카프의 논객들은 기술의 발전을 프로문학을 설명하는 결정적 준거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생산력 발전을 보여줄 수 있는 수치, 그리고 기술 자체의 반영이 프로문학의 발전을 설명하는 매개가 된 것이다. 가령 박영희는 “한 사회의 예술의 사회적 양식이라는 것은 그 사회의 생산적 양식으로부터 반영”¹⁷⁾된다고, “사적유물

13) 임화는 윤기정과 함께 신간회 해소를 전면에서 선동한 인물이기도 하다. 임화는 1931년 5월 16일 신간회 2회 전체대회에 참가하여 윤기정과 함께 해소를 전면에서 선동했다. 이균영, 『신간회 연구』, 역사비평사, 1996, pp.523—534 참조.

14) 1920년대 후반 『조선지광』의 유물논쟁의 그 의미에 대해서는 박민철·이병수, 「1920년대 후반 식민지 조선의 맑스주의 수용 양상과 그 의미」, 『한국학연구』 59, 2016.

15) 임화, 「세계경제공황의 발전과 노동자 계급의 신상태」, 『신계단』 6호, 1933.3, p.11.

16) 1920년대 사회주의의 과학성이 수리적 사고와 연계되는 맥락에 대해서는 장문석, 「사회주의와 통계」, 『구보학보』 16집, 2017을 참고할 수 있다.

17) 박영희, 「예술학의 과학적 가치」, 『대조』 1호, 1930.3, p.26.

론의 근거를 이룬 것은 생산이다.”¹⁸⁾라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제시했다. 민병휘는 『조선프로예술운동의 과거와 현재』에서 카프를 신경향파시대(1924~5), 무산파시대(1926), 목적의식기(1927~8), 예술의 대중화문제(1929~30) 시기로 구분한다. 이 중에서 현재는 “사회의 생산발전에 적응되는 경제관계에 의한 세계관에서 출발한 현실을 현실대로 묘출하는 객관적 실제생활인 프롤레타리아 리얼리즘이란 맑시즘적 예술운동으로 비약”¹⁹⁾하는 시기로 정의된다. 주관적 감정에 기댄던 신경향파 시대와 1930년 현재의 가장 큰 차이는 생산력 개념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 현실 인식과 이에 따른 정치의식의 성장이라는 논리이며,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프롤레타리아 예술의 대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예술운동이란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조직을 위하여 그 운동을 지하적으로 공장과 농촌 동맹”²⁰⁾으로 정의하며 임화의 『우산 받은 요꼬하마의 부두』(『조선지광』, 1929.9)와 권환의 『우리를 가난한 집 여자이라고』(『조선지광』, 1930.6)를 비교한다. 권환의 작품을 “로맨티시즘에서 탈출하여 프롤레타리아트의 생활을 실제적으로 묘출”했다고 고평한 반면 임화의 시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았다.

우리는 눈물에서 젖어 있는 이 작품에서 아무것도 찾아내지를 못하였다. 다만 작품의 주관에서 움직이는 한 노동자의 눈물겨운 애소(哀訴)밖에 되지 못하였다. 여기에는 아직 프로 조직을 위하는 바의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다. 더욱이 우리는 이같이 로맨틱한 노동자의 노래를 승인하여서는 안 된다.²¹⁾

18) _____, 『객관적 존재의 주관적 의지의 상호관계』, 『대조』 4호, 1930.7, p.3.

19) 민병휘, 『조선 프로예술운동의 과거와 현재』, 『대조』 5호, 1930.8, p.76.

20) _____, 『예술의 대중화문제』, 『대조』 6호, 1930.9, p.32.

21) _____, 위의 글, p.36.

민병휘는 임화의 시를 노동자의 주관-감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비판한다. ‘아지-프로’로서의 문학은 현실에 대한 과학적 현실인식에 토대를 이루어져야 하는데, 임화의 작품은 주관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비과학적인 현실인식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민병휘의 이러한 판단에는 기술적 진보, 즉 생산력의 발전이 초래한 인간 주체의 감성과 정동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 평가의 기준은 기술의 발전으로 탄생한 생산 양식과 그로 인한 인간 주체의 변화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느냐가 되어야 한다. 즉 생산력 혹은 생산양식의 문제는 기술발전의 모습과 함께 경제체제의 변화가, 삶의 양태를 어떻게 바꿔나가는지를 질문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²²⁾ 바로 이 지점에 임화의 시 작품이 위치한다.

② 1930년대에 사회주의 운동은 완전히 지하로 들어갔다.²³⁾ 사회주의 운동의 정통성을 지하나 감옥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카프에게는 1차 검거사건으로 현실화되었다. 현실의 가혹한 탄압이 사회주의자들에게 어떤 감정을 가져다주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불세비키의 깃발을 드는 것이 운동의 진전을 위해서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음은 충분히 짐작가능하다. 1930년을 전후한 무렵 임화의 시에는 연대와 사랑, 그리고 투옥의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22) 폴 메이슨은 생산양식 개념을 새로운 경제체제로 설명하며, 셰익스피어와 마르크스를 마주세운다. 셰익스피어가 새로운 경제가 사람의 성격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했다면, 마르크스는 기술의 발전을 주목했다. 즉 이 두 가지 측면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폴 메이슨, 안진이 역, 『포스트 자본주의의 새로운 시작』, 더 퀘스트, 2017, pp.393~398.

23) 1930년대 사회주의 운동 상황에 대해서는 김경일, 『일제하 노동운동사』, 창작과비평사, 1992; 서대숙,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연구』, 화다, 1985; 신주백 편, 『1930년대 민족해방운동론연구 1』, 새길, 1989 등을 참조.

임화의 『우산 받은 요꼬하마의 부두』는 조선 국적의 남성 노동자와 일본 국적의 여성 노동자의 연대와 사랑을 다룬 작품이다. “너는 이국의 계집애 나는 식민지의 사나이”이지만, 두 사람은 함께 노동하며 동지적 관계를 맺고 지내왔다. 그래서 추방당하는 나를 보며 이국의 계집애는 눈물을 흘린다. 이에 화자는 “두 개 다른 나라의 목숨이 한 가지 밥”을 먹었던 사실을 거론하며 “분한 사실로”²⁴⁾ 가슴을 채우고 행동하기를 주문한다. 추방, 즉 법적 폭력을 극복하기 위한 감정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국의 개집애야!
 눈물은 흘리지 말아라
 거리를 흘러가는 ‘데모’속에 내가 없고 그 녀석들이 빠졌다고—
 섭섭해 하지도 말아라
 네가 공장에 나왔을 때 전주(電柱)뒤에 기다리던 내가 없다고—
 거기엔 또 다시 젊은 노동자들의 물결로 네 마음을 굳세게 할 것이
 있을 것이며
 사랑의 주린 유년공들의 손이 너를 가다릴 것이다—²⁵⁾

조선인 남성은 매우 단호한 태도로 일본인 여성 노동자의 감정적 동요를 막는다. “사랑하는 사나이를 이별”하는 감정을 “분한 사실”에 대한 인식으로 전환시켜 ‘추방’이 상징하는 법적 폭력에 맞서 싸울 것을 추동한다. 즉 슬픔의 감정을 혁명을 위한 ‘열의’로 정동시키는 것이다. 민병휘는 이렇게 정동되는 신체를 비판적으로 인식했다. 하지만 1930년 무렵의 상황에서 이러한 방법은 사회주의 운동의 목적을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검거와 투옥이라는 정치적 현실 앞에서 대중의 응집력을 높일 수 있는

24) 임화, 『우산 받은 요꼬하마의 부두』, 『조선지광』, 1929.9; 『전집 1』, p.73.

25) 임화, 위의 글, 위의 책, p.72.

거의 유일한 전략이다. 임화의 정동에 대한 이러한 인식과 표현은 『양말 속의 편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기도 했다.

참자! 눈보라야 마음대로 미쳐라 나는 나대도 뺨대리라
기쁘다 XX도 XXX군도 아직 다 무사하다고?
그렇다 깊이 깊이 다 땅 속에 들어들 박혀라²⁶⁾

『양말 속의 편지』 결국 직전의 구이다. 이 구절은 당대 사회주의자들이 일본 경찰의 검거로 투옥되거나 지하로 스며들어가 있음을 시사한다. 1928년의 제4차 공산당 사건으로 공산주의당 운동이 사실상 마비가 되고, 원산 총파업(1929), 부산방직공장파업(1930) 등이 발생했지만, 일본 경찰의 진압결과 노동자의 패배로 끝나고 말았다. 1929년에는 카프의 기관지 『무산자』도 발매금지 처분을 받았다. 즉 『양말 속의 편지』는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 처한 임화가 투옥된 주의자의 정념을 통해 “나도 이냥 이대로 돌맹이 부처같이 뺨대리라”는 혁명에 대한 열의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임화는 『양말 속의 편지』에 대한 정노풍의 비판을 반박하며 “『양말 속의 편지』는 전위의 입으로 불려진 노래이다. 이 사건은 부산방직의 파공(罷工)을 서사적사건으로 삼입하여 구성된, 뇌옥에 있는 지도자가 직공들에게 보내는 노래이다.”²⁷⁾ 라고 말한바 있다. 시의 배경이 파업 현장에 있다는 사실이 작품의 전위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임화가 파업 현장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야말로 ‘전위의 눈’이 실현되는 조건이자, 주관적일 수 있는 시의 현장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배경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생산한 예술 특히 시에 있어서 우리는 급격히 성장하

26) 임화, 『양말 속의 편지』, 『조선지광』, 1930.3; 『전집1』, p.75.

27) ____, 『노풍 시평에 항의함』, 『조선일보』, 1930.5.15.~19; 『전집 4』, pp.157-158.

는……의 요구, 양등하는 XX적 파도의 고조된 욕구”²⁸⁾를 반영한 작품의 창작이 중요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처럼 「우산 받은 요꼬하마의 부두」와 「양말 속의 편지」는 제국의 법적 폭력(추방, 검거)에 처한 화자의 정념을 통해 주어진 현실을 돌파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수의 카프 작가들이 생산기술의 발전을 과학적 사회주의로 치부하며 논의를 전개할 때, 임화는 그러한 과학성이 인간을 또 어떻게 억압하는지를 인식하고 비판한 것이다. “피안(彼岸)에는 무기형과 교수대가 놓여 있는 ‘치유법’이 기다리고”²⁹⁾있는 현실에서, “아지트의 사업을 두더지같이 지하”에서 진행되는 목소리를 표현한 것이다.³⁰⁾

1930년대로 접어들면 카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1931년 1차 검거 사건 이후 카프가 사실상 해체의 수순을 밟는 와중에 임화는 서기장에 취임한다. 그리고 임화는 조직의 창작 지침을 “무절제한 정치주의화한 기계적 고정화”³¹⁾로 비판하고 서구 문화의 기계적 이식이 아니라 조선적인 환경에 대해 묻기 시작한다.³²⁾ 1931년 카프 기술부 설치의 의미도 이러한

28) 임화, 「시인이여! 일보 전진하자!」, 『조선지광』, 1930.6; 『전집4』, p.169.

29) ____, 「노풍 시평에 항의함」, 『조선일보』, 1930.5.15.~19.; 『전집4』, p.162.

30) 1929~1930년 임화 시에서 투옥된 주의자의 모습은 빈번하게 등장한다. 감옥에 간 동무를 향해 편지를 보내거나(「봄이 오는구나」(『조선문예』, 1929.5), 감옥에서 죽은 동지에 대한 사랑과 투쟁에 대한 의지를 되새기는 화자가 등장하거나(「병감에서 죽은 녀석」(『무산자』, 1929.7), 투옥된 경험과 봄의 이미지를 병치시키는 작품(「제비」, 『조선지광』, 1930.6) 등 감옥의 이미지는 다양하다. 각기 조금씩 다르지만 투옥된 신체의 정념과 그 이동을 다룬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31) 임화, 「1931년간의 카프예술운동의 정황」, 『중앙일보』, 1931.12.7.~12.13.; 『전집4』, p.180.

32) “현재에 비사히 불비(不備)한 주관적 조건을 전부 무시하고 한숨에 문화연맹의 조직 방략을 운위하고, 당장이라도 십수개 가맹 기초조직을 가진 일본이나 독일의 문화운동을 그대로 세워보려는 기도는 더 한층 중증의 환상”이다. (임화, 「당면 정세의 특질과 예술운동의 일반적 경향」, 『조선일보』, 1932.1.1.~2; 『전집 4』, pp.232~233.)

맥락에서 되짚어질 필요가 있다. 법과 미디어를 활용한 식민지(자본)권력의 통치 체제란 추방과 검거가 표상하는 현실의 엄혹함을 의미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예의 불세비키화라는 정치적 명제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억압된 신체의 정념을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영화나 연극 등의 장르는 인간 주체의 감정을 자극하고 정념을 전환시켜 현실에 맞설 수 있는 신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임화가 주관을 노래하면서도 기술의 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였던 것은 기술이 인간의 감성을 어떻게 억압하고 해방시킬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 날카롭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30년대 초반 카프가 추구했던 정치주의란 식민지 현실에서 실현되기 불가능한 것이었다. 게다가 그 목적성에 의해 창작된 작품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비판받게 된다. 신간회 해체 무렵 카프 논자들에게 발견되는 정치적 지향이 현실에서 의미는 갖는 것은 급변하는 정세에 처한 자기의 신체에 주목할 때이다. 임화는 이 점을 누구보다 명민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임화에게 혁명에 대한 열의는 진실이고 인간다움의 발현이었다. 그래서 그는 투옥되고 구금되는 현장을 그리면서도 그 속에서 인간에 대한 열정을 발견하려고 한다. 이때의 인간은 계급적 주체였다. 임화는 백철의 시에 대해 “이것이 진실이다!”하고 읽는 사람의 가슴을 누르는 힘이 엷은 것이다”³³⁾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를 “규율 있는 조직 생활”훈련을 받지 못해서라고 한다. 이렇게 볼 때 임화에게 당이란 조직론의 위치에 서 있는 기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윤리, 혹은 양심과 깊게 결부된 것이다. 전위의 눈, 즉 혁명에 대한 열의가 곧 인간다움이었으며 진실함이라는 믿음은 윤리적 주체로서 자기에 대한 인식을 토

33) 임화, 「동지 백철군을 논함」, 『조선일보』, 1933.6.14.~17; 『전집 4』, p.240.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것은 기술의 문제와 깊게 연관된다는 점에서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

Ⅲ. 인쇄 미디어와 투옥된 신체

①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초반 『조선지광』에서 벌어진 유물론쟁과 과학적 사회주의의 강화라는 맥락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생산력의 발전이 만들어낸 문화적 환경에 대한 인식이다. 앞서의 논의처럼 카프의 주된 경향성은 생산력 발전이라는 과학적 인식을 강조하고 주체의 감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렇지만 생산력의 강조는 조금 더 넓은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근대 기술과 그로부터 생겨나는 문화기구가 개인의 삶을 어떻게 규율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근대의 문화기구가 나의 신체를 당기는 힘과 이에 대한 주체의 의지가 경험하는 양상을 살필 때 조금 더 생산적 논의가 가능하다. 임화 시에 나타난 법적 폭력도 이러한 논의에서 있는 것이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인쇄 미디어에 대한 인식이다.

1931년 봄 동경에서 귀국한 김남천은 그해 10월 카프 1차 검거 사건으로 투옥되었다가 1933년 보석으로 출감하였다. 임화, 안막 등의 무산자파와 귀국할 당시 김남천은 당시 진행 중이던 평양고무공장 파업에 합류하여 격문과 삐라를 쓰고, 카프에 반기를 들었던 『군기』 사건에 대해서도 조지론의 입장에서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³⁴⁾ 적어도 투옥되기 전까지 김남천

34) “카프와 및 X열(列)로부터의 탈주병을 중요하는 일체의 양심적 노력대중은 청산주의의 박멸(撲滅)과 그들의 손에서 생겨나는 반동화한 『군기』의 보이코트의 방향을 취(就)하여야 할 것이다.…(중략)…모든 악독한 변절자와 청산파적 우익분자의 청소

의 행보에는 “조직 만능주의”³⁵⁾가 주도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1930년대 초반 김남천을 조직 만능주의자로 명명하는 것은 주 의자로서 김남천의 중요한 면모를 놓칠 수 있다. 주의자로서 김남천의 현실 인식과 소설적 재현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한다. 검거되기 전후의 맥락이 중요하다. 『공장신문』에는 파업 이후 주동자가 모두 검거된 상황에 처한 직공 관수가 등장한다. 관수는 점점 파업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공장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싶지만 그럴수록 불안감만 더해 진다.

어떻게 하면 조그만 불평불만이라도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공장 안에서 일어나는 불평불만을 대표하여 그의 선두에 설 수 있을까? 공장 노동자 속에 아직 뿌리를 박고 있는 타락한 조합 간부의 힘을 어떻게 없이 할 수 있을까? 한번 손을 붙였다가 실패하면 그럴수록 자기가 우울해지고 초조해지는 것만 같았다.³⁶⁾

관수는 노동자 편에 서서 그들을 조직하고 이끌어야 한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방법을 알지 못해서 우울하다. 물을 마시는 일로 동지와 사측 사이에 시비가 붙어서 전무에게 항의를 하려는 관수에게 재창은 조합에 호소할 것을 요청하며, “자네는 법률을 모루누만! 이 이상 더 여기서 떠들문 위험해! 옥외집회로!”³⁷⁾라고 한다. 법과 권위 앞에 무기력해진 관

에 의하여 모든 곤난 속에서 카프를 방위(防衛)하지 않으면 안 된다.”(김남천, 『반 ‘카프’음모 사건의 계급적 의의』, 『조선지광』, 1931.9; 『전집 I』, p.6.)

35) 채호석, 『입화와 김남천 비평에 나타난 ‘주체’의 문제』, 『상허학보』, 1998, p.193.

36) 김남천, 『공장신문』, 『조선일보』, 1931.7.5.~15; 채호석 편, 『김남천 단편선 맥』, 문학과지성사, 2006, p.8.

37) 위의 책, p.16.

수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관수의 이러한 감정이 정동되는 것은 “타타 줄 열한 획수”의 주인공 창선을 만나고부터이다. 관수는 창선 등 동료들과 함께 ‘평화공장신문’을 발행하고 재창을 배제한 새로운 노동자 조합 결성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만세를 외친다. 『공장신문』은 임화에게 “1931년에 있어서의 조선문학의 최고점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단언하기에 나는 조금도 주저치 않는다.”³⁸⁾ 라는 고평을 받았다.

『공장신문』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신문이라는 미디어에 대한 김남천의 감각이다. 미디어는 듣고 보는 사람의 신체에 무엇인가를 유발한다. 미디어에 의해 자극된 신체는 정념의 변화를 통해 조합 간부 재창을 몰아내고 더 좋은 감정을 위해 이동하게 된다. 혁명에 대한 열의로 번역되는 정동의 이동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의 매개로 『공장신문』은 인쇄 미디어의 중요성을 강조한 작품이다. 신체는 미디어에 의해 같은 정동으로 조율되며 노동자 단결과 투쟁이라는 대의에 접속한다. 중요한 것은 대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인쇄 미디어의 위치와 신체의 관련성을 읽어내는 작업이다.

1933년 출옥 이후 김남천의 행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당대 미디어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당대 잡지 매체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았다.

수다한 좌익적 잡지에 대하여 ‘카프’는 문학운동의 통일과 관련시켜 일정한 테제를 발표함이 요망되고 있다. 지금 그 소위 좌익적 잡지를 기억에 오르는 대로 추어보더라도 『대중』, 『비판』, 『전선』, 『신계단』, 『이러타』, 『집단』, 『문학건설』, 『영화부대』, 『연극운동』 등등을 셀 수 있다. 『집단』 이하는 현재 질

38) 임화, 『1931년간의 카프예술운동의 정황(情況)』, 『중앙일보』, 1931.12.7.~12.13; 『전집4』, p.181.

식상태에 있으며 그것은 대부분 카프의 조직적 통제 밑에 있었다고 본다. (중략) 문화적인 잡지라고 표방하면 그것이 문화적 잡지가 되는 것이 아니며 정치에 관한 약간의 시감을 실는다 하여 그것이 정치적 잡지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이 정치적 내지는 문화적인 조직사업과 결합된 것이라야 진정한 정치적 문화적 잡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좌익잡지가 조직과의 관련에 대하여 하등의 이해도 갖지 못하는 한 그것은 문화적 잡지도 또한 정치적 잡지도 아닌 것이다.³⁹⁾

인용문에서 김남천은 1930년대 초반 발간된 사회주의 잡지를 나열한 뒤에 조직과의 연관성을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치적 시각이 드러나는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직과 연결되어야 사회주의 잡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카프가 존립하는 기간 동안 기관지에 대한 열망은 끊이지 않았다. 경성지부의 감각이란 합법매체를 통해 카프의 이념을 표현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어떤’매체인가는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무산자와 출신의 김남천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매체인가, 즉 매체 발간 주체의 입장이 무엇인가에 있었다. 그 기준으로 작용한 것이 바로 당 조직으로서의 사회주의라는 관점이다. 김남천은 바로 이러한 입장에서 당대 매체를 일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판』! 이 잡지와 및 그 출판사와 대하여는 그것을 정당히 이끌고 갈려는 의도보다 대중의 면전에서 그의 본질을 폭로하는 기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 잡지가 여태껏 좌익잡지로 통용해 온 것에 대하여 나는 의심을 금할 수가 없다.”⁴⁰⁾라며 1930년대 최대 사회주의 잡지 『비판』⁴¹⁾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대목에서도 다시 한 번

39) 김남천, 「문학시평」, 『신계단』 8호, 1933.5, p.78.

40) 김남천, 「잡지문제를 위한 각서」, 『신계단』 9호, 1933.6, pp.85~86.

41) 최근 연구에 의하면 『비판』은 1930년대 여타 사회주의 잡지와는 다르게 흥미위주의 잡자한 지식과 연애담 등에도 많은 분량을 제공한 대중종합지를 지향했다. 특히 『비판』

확인된다. 훗날 김남천은 이 시기를 회고하며 『조선지광』에 비해 개방적인 내용을 게재하고, 또 당시 카프가 출간한 잡지 『집단』으로 결집하기 위해 『비판』을 비판했음을 말한바 있다.⁴²⁾

하지만 당대 인쇄 미디어에 대한 김남천의 시각은 그다지 효과적인 것이 되지 못했다. 1930년대 매체 환경의 특징은 자본주의 체제 확립과 사회주의 잡지의 고립으로 정리할 수 있다. 1930년대 잡지 시장이 활황을 이루고 문학은 지면을 매우기 위한 중요한 매개로 여겨졌다. 잡지들 사이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독자적인 문학체제가 요청되었다.⁴³⁾

그 와중에 사회주의 잡지는 대중들과 점차 고립되어 갔다. 조선지광사는 『조선지광』이 폐간 된 직후 『신계단』을 발간했다. 하반기 『조선지광』부터 『신계단』에는 사회주의 지식과 정세에 대한 기사가 다수를 이루었다.⁴⁴⁾ 이와 관련하여 1930년 1월 『조선지광』에 게재된 「『조선경제연구의研究』의 일독」은 상징적이다. 이 글은 일본에서 간행된 경성제국대학 법문학회의 논문을 백남운이 번역한 것이다. 그리고 『신계단』에는 신남철의 「이데올로기와 사회파시즘」(1호), 이청원의 「소련2차 5개년 계획에 관하여」(7호), 이청원의 「일본에 있어서의 경제공황은 어디로 가나」(8호), 이청원의 「세계경제공황과 국제경제회의」(9호) 등이 게재되었다. 1930년대로 접어

」 소재 고정란은 하위 주체의 읽을 발굴하고 전달하려는 노력을 했다. (유승환, 「하위 주체적 ‘읽’과 사회주의 매체전략 『비판』 소재 고정란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53, 민족문학사학회, 2013; 허 민, 「적대와 연대-1930년대 ‘활자전선(活字戰線)’의 구축과 복수의 사회주의」, 『민족문학사연구』 53, 민족문학사학회, 2013.)

42) 김남천, 「『비판』과 나의 십년」, 『비판』, 1939.5; 앞의 책, pp.332~333.을 참조.

43) 1930년대 문학 시장과 잡지들 사이의 경쟁에 대해서는 유석환, 「1930년대 잡지시장의 변동과 잡지 『비판』의 대응」, 『사이』,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9를 참고.

44) 1927년 『조선지광』은 <사회과학강좌>를 기획하였으며, 1928년부터 1931년까지는 <자유대학강좌>를 기획·연재하였다. 『신계단』은 <학술란>, <자료란> 등을 기획하고 세계 정세와 마르크스·레닌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게재했다.

들며 『조선지광』과 『신계단』은 대학의 실증사관과 과학적 방법론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1930년대 초반 사회주의의 과학성이란 학문적 엄밀성과 국제정세에 대한 객관적 인식에도 방점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앞서 임화에 대한 논의에서도 살펴보았듯 사회주의 운동이 모두 지하로 들어가고 합법 영역에 남은 것은 이론으로서 사회주의가 지녀야 하는 과학적 성격의 강화였다. 과학성의 강화가 이론의 엄밀성으로만 귀결될 때 현실과의 거리는 멀어진다. 수치의 제시는 객관적 정세 인식에는 큰 도움이 되지만 혁명이라는 대의를 위해 대중을 추동하는 방법으로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런 면에서 1930년대 초반 인쇄 미디어에 대한 김남천의 주장이 현실에서 성과를 거두기란 불가능했다. 창간호에서 문학 배제를 외쳤던 『신계단』이 문학을 게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⁴⁵⁾에서 알 수 있듯, 이론과 운동성의 강화라는 명분은 제국 권력의 탄압을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계단』과 천도교의 대립은 사회주의 세력 전반으로 확장되었으며,⁴⁶⁾ 그럴수록 현실 정치에서 사회주의의 파괴력은 감소될 수밖에 없었다. 일본 경찰의 입장에서도 사회주의 지식과 세계정세의 전달은 그다지 큰 위협적 요소가 아니었다.⁴⁷⁾

45) 『신계단』은 창간호에서 “지면을 좀 더 절박한 필요에 충당시키자”는 이유로 문예물을 게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과학적 지식의 전달과 운동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2호부터는 “부르주아 잡지의 타락된 문예란에 비하여 본지 문예란은 특색 있는 자랑할 만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문예물이 게재된다.

46) 『신계단』은 천도교 세력의 폭력 행사 이후 ‘종교 비판’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재했다. 1930년대 사회주의 잡지의 내용 변화에 대해서는 김민환, 『일제하 좌파 잡지의 사회주의 논설 내용 분석』, 한국언어학보 49, 한국언론학회, 2005를 참고.

47) 한기형은 식민지 시기 검열체제와 사회주의 잡지를 다룬 글에서 “사회주의와 관련한 이론, 사상, 지식, 문화 등 제 현상이 제국 일본에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 대중 일본의 자기 향상 운동 즉 대중의 욕망과 분노가 사회주의와 결합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점을 검열당국은 잘 알고 있었다.”(한기형, 『식민지 검열정책과 사회주의 관련 잡지의 정치역학』, 『식민지 검열』, 소명출판, 2011, p.181.)라고 언급한 바 있다.

② 「공장신문」이 사회주의 조직운동을 위한 인쇄 미디어의 중요성을 강조한 소설이라면, 인쇄 미디어에 대한 김남천의 이러한 입장은 「잡지문제를 위한 각서」(1933.6)에서 확인할 수 있듯 감옥에 다녀온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출감 이후 김남천에게는 적지 않은 변화가 감지된다. 김남천은 1933년에 4편의 소설(「나란구」, 「나뎀 그의 동지(긴 수기의 일절)」, 「물」 「생의 고민」)을 발표했으며, 1934년에는 「문예구락부」를 발표했다. 그리고 약 3년 동안 소설 창작을 하지 않는다. 이는 곧 1933~4년 발표된 4편의 작품에 투옥의 경험이 반영되었을 것이란 짐작을 하게 만든다. 소설 「물」에 대한 임화의 비평은 다음과 같았다.

이 작자(김남천-인용자)는 이 성하(盛夏)에 감옥살이하는 사람들의 괴로움을, 더욱 때 누구나 갈망하는 물에 대한 고조된 욕망과 결부시키어 ‘구체적’으로 원념(圓念)히 그리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훌륭한 유물론자 리얼리스트인 것이다. 그러나 소설 「물」은 그것뿐이다. 그것 이외에는 별다른 무엇을 발견하기가 곤란하다. …(중략)…그런데 주요한 것은 작자는 현실의 전부를 그린 것이 아니고 현실의 일부분, 다른 한쪽을 남겨 놓은 일 측면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⁴⁸⁾

임화는 김남천이 「물」을 통해 유물론자 리얼리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무더위에 좁은 방에 갇힌 화자의 신체 반응을 적실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의 절반만을 보여주는 것에 그쳤다고 한다. 임화가 말한 나머지 절반은 “인류의 역사를 전방(前方)으로 이끌어 나가려는 이 사회의 ‘도덕적 인간’들-다른 한쪽의 ‘인간’의 욕망”이다. 다시 말해 단편 「물」이 극한의 상황에 처한 인간의 생리적 본능을 보여주었다면, 그

48) 임화, 「6월 중의 창작」, 『조선일보』, 1933.7.18; 『전집 4』, pp.261-263.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억압된 신체를 자유롭게 이끌려는 정념이라는 말이다. 임화의 입장에서는 현실에 얽매이는 신체가 아니라 현실의 억압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정동하는 신체가 강조되어야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김남천은 임화의 비판처럼 생리적 본능만을 표현한 것일까? 이 작품이 1931년 발표된 『공장신문』, 『공우회』 등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은 극한의 상황에서 자기의 신체를 직접 인식하게 되는 대목이다. 주인공 ‘나’는 갈증이 최고조에 이르자 “두평 칠합”에 모여 있는 13명의 수감자들이 “생명도 없고 피도 없고 열정도 식은 열세 개의 고깃덩어리같이 생각 되었다”⁴⁹⁾고 한다. 임화의 시가 투옥된 주체들의 혁명에 대한 열의를 드러내고, 이를 통해 정치투쟁을 위한 잠재적 가능성으로서 정념을 표현했다면, 이 작품은 투옥된 주체가 자기의 신체를 날 것 그대로 드러내는 방식을 취한다. 그리고 소설의 마지막에 설사를 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자기의 운명을 암시한다.⁵⁰⁾ 소설의 전면에 드러나는 것은 갈증과 배설, 즉 생리적 육체만 남은 지식인의 표상이기 때문에 일본 경찰의 검열을 피할 수 있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투옥의 경험으로 인해 변화된 김남천 소설의 재현 방식이다. 먼저 직접 투쟁을 그대로 노출한 작품과 투옥된 주체의 감정을 재현하는 방식에 주목한 작품의 거리는 적지 않다. 그럼에도 두 작품은 법과 미디어에 의해 형성되는 정동을 주제로 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공장신문』에서는 인쇄 미디어에 의해 흠어진 노동자들이 결집하게 된

49) 김남천, 『물』, 『대조』, 1933.6; 김성수 편, 『카프대표소설선II』, 사계절, 1988, p.220.

50) 구재진은 『물』의 3장에서 사람들이 연대하여 교섭하는 모습을 보이는 대목을 “이성적 인간의 차원, 그리고 윤리적 인간의 차원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해석한다. (구재진, 『카프 문학과 윤리적 주체』, 『비평문학』 39, 한국비평문학회, 2011, p.27.) 이는 임화의 해석과 다르게 『물』이 단지 생리적 본능만을 보여준 작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다. 다시 말해 정동을 형성시키는 매개로서 미디어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물」의 경우 소설을 통해 부조되는 것은 설사를 하는 ‘고깃덩어리’이다. 투옥된 신체는 더 이상 정동하는 주체가 아니다. 그저 먹고 싸는 동물의 육체로 전락한 신체는 역설적으로 정동되는 신체의 의미를 상기시킨다.

조직과 자기의 위기를 겪고 나서야 내면성을 드러내었던 김남천의 모습에서 카프의 정치적 결박을 읽어내게 된다. 1930년대 카프의 불세비키화 과정에서 김남천의 「물」과 같은 소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창작될 수 있었다면 어떠했을까? 과학적 사회주의를 신체의 정동을 부정하는 방향이 아니라 융합하고 조금 더 정념이 가지고 있는 불온성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했다면, 좀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정념은 법과 미디어와 같은 근대의 기구들과 신체가 융합하는 과정에서 생겨난다. 정동된 신체는 현실 정치에 대항하는 주체이다. 임화가 선/악의 구분 속에서 정치적 입장을 전제한 정념을 강조했다면, 김남천은 「물」이라는 작품을 통해 선=노동자 전위, 악=생물학적 본성을 횡단하는 정념의 시선을 드러냈다. 이를 통해 정치와 문화, 즉 법 제도를 횡단하는 주체의 전위성을 조금 더 실감 있게 드러낼 수 있었다.

IV. 맺는 말

1930년대 초반 카프는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열의가 가장 높았던 시기이다. 그 만큼 당과 조직에 대한 신뢰가 두터웠지만, 조직 안팎으로 큰 위기에 부딪혔다. 전통적인 프로문학 연구에서는 당과 조직의 관점에서 사회주의를 인식한 1930년대 초반을 높게 평가했으며, 최근의 감성 연구에서는 이 시기에 대한 언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다시 프로문학을 연구한다는 것의 의미는 1930년대 초반을 피해서는 온전히 답할 수 없다. 1930년대 초반은 정치-문화적으로 혼란의 시기였지만, 혁명에 대한 열망은 가장 뜨거웠기 때문이다. 테리 이글턴은 “사회주의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또한 그 비전에는 우리 존재의 저 깊은 곳에 호소하며 열정적인 동의를 이끌어내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고,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진정한 나 자신이 아닐 터이기 때문이다.”⁵¹⁾라고 쓴 바 있다. 1930년대 초반 임화와 김남천의 현실인식과 정동의 문제를 추적한 이 글이, 주목한 것은 바로 ‘진정한 나’의 문제였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1930년대 초반 사회주의 진영은 문화정치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한 시기였다. 정치적 측면에서 신간회 해소와 일제의 사회주의자 검거사건이 있었으며, 카프는 『군기』 사건이 발생하는 등 조직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문화적으로는 각종 잡지의 창간과 이에 따른 경쟁적 구도가 성립되었다. 선행연구가 반복적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1930년대 초반은 1920년대에 비해 사회주의 지식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어 나타난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카프를 포함한 사회주의 진영이 처한 문화정치적 복잡성은, 식민지 현실에 대한 대응 방식을 단일하지 않게 만들었다.

임화와 김남천은 당대의 과학적 현실인식과 그에 바탕을 둔 사회주의 조직운동에 누구보다 충실하고자 했다. 이들은 각종 통계와 자료를 이용하여 국제 정세를 드러내고 대학의 실증사관을 도입하는 등 과학적 사회주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또 인쇄 미디어를 통한 재현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수용했다.

동시에 임화와 김남천은 점점 강도를 더해가는 일제의 탄압에 맞서 자

51) 테리이글턴, 강주현 역, 『신을 옹호하다』, 모멘토, 2010, p.162.

기의 신체에 주목했다. 임화는 「우산 받은 요꼬하마의 부두」, 「양말 속의 편지」에서 ‘추방’당하거나 ‘투옥’된 주의자(혹은 동료)의 정념을 드러내며, 정동된 신체를 통해 사태를 돌파하고자 했다. 김남천은 자기의 투옥 경험에 토대를 두고 ‘고깃덩어리’같은 신체의 생리적 욕망을 통해 정동되는 신체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일본 제국의 법 제도와 결부되어 임화가 조금 더 정치적 열의를 드러냈다는 차이는 있지만, 정념의 이동에 주목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김남천은 “임화가 그의 실천을 통하여 그의 심장을 점차 노동자 계급의 속에 뒹에 의하여서 비로소 가능하였다고 보는 것만이 절대로 정당할 것이다.”⁵²⁾라고 말한바 있다. 임화에게 정념이란 노동자 계급의식, 즉 정치투쟁을 향한 열의와 동일한 것이었다. 한편 김남천은 「물」을 통해 드러나듯 ‘고깃덩어리’ 같은 식민지 지식인의 현실을 직시하며 일제 말기 고발문학론을 비롯한 일련의 비평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한다. 자기의 신체, 그 자체에 주목한 김남천과 혁명을 위한 열의를 강조했던 임화의 차이는 일제 말기 자기에 대한 성찰로 나아간 김남천, 역사에 대한 탐구로 나아간 임화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기도 하다. 비록 정치적 위기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양상은 달랐지만, 두 작가는 법과 제도를 넘어서는 문화정치적 실천의 매개로써 신체의 의미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현재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자본에 의해 점령당한 자기의 신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52) 김남천, 「임화에 관하여」, 『조선일보』, 1933.7.23.; 『전집I』, p.39.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무산자』
『조선지광』
『신계단』
『대조』

정호웅·손정수 편, 『김남천 전집I』, 박이정, 2000.
김성수 편, 『카프대표소설선II』, 사계절, 1988.
김재용 편, 『임화문학예술 전집 1』, 소명출판, 2009.
신두원 편, 『임화문학예술 전집 4』, 소명출판, 2009.
채호석 편, 『김남천 단편선』, 문학과지성사, 2006.
하정일 편, 『식민지시대 노동소설선』, 민족과문학, 1988.
한기형 편, 『카프비평자료총서IV. 불세비키화와 조직운동』, 태학사, 1990.

2. 논문 및 단행본

고영란, 『전후라는 이데올로기』, 김미정 역, 현실문화, 2013.
구재진, 『카프 문학과 윤리적 주체』, 『비평문학』 39, 한국비평문학회, 2011.
레지 드브레, 『매체론으로 본 사회주의의 역사』, 『뉴레프트리뷰』, 길, 2009.
손유경, 『프로문학의 감성구조』, 소명출판, 2012.
심지연,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인식과 논리』, 백산서당, 2015.
유석환, 『1930년대 잡지시장의 변동과 잡지 『비판』의 대응』, 『사이』,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9, pp.239~271.
유승환, 『하위주체적 ‘읽’과 사회주의 매체전략- 『비판』 소재 고정란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53, 민족문학사학회, 2013, pp.111~143.
이균영, 『신간회 연구』, 역사비평사, 1996.
장문석, 『사회주의와 통계』, 『구보학보』 16, 구보학회, 2017, pp.341~383.
질 들뢰즈 외, 서창현 외 역, 『비물질노동과 다중』, 갈무리, 2014.
최병구, 『근대 미디어와 사회주의 문화정치』, 『정신문화연구』 148, 정신문화연구원, 2017, pp.255~280.

최은혜, 『저변화된 낭만, 전면화된 사실』, 『우리어문연구』 51, 우리어문학회, 2016, pp.361~397.

테리 이글턴, 강주현 역, 『신을 옹호하다』, 모멘토, 2010.

한기형, 『식민지 검열정책과 사회주의 관련 잡지의 정치 역학』, 『식민지 검열』, 소명출판, 2011.

허 민, 『적대와 연대-1930년대 ‘활자전선(活字戰線)’의 구축과 복수의 사회주의』, 『민족문학사연구』 53, 민족문학사학회, 2013, pp.73~110.

Abstract

The Body and Affection: The Dynamics of Cultural Politics in
Proletarian Literature in the 1930s
-Focusing on Im Hwa and Kim Nam cheon-

Choi, Byoung-goo

This paper reconstructs in the early 1930s focusing on the concept of body and affection. In particular, this paper focuses how the logic of being Bolshevik and the politics of emotion combine based on Im, Hwa, and Kim Nam-Cheon, who returned from Japan in 1930. They worked for the *Musanjasa* in Japan and participated in the Communist Party's reconstruction movement. Kim Nam-Cheon was imprisoned for the first arrest of KAPE in 1931, and then Im, Hwa, and Kim had "the argument about Mool." Throughout these incidents, two writers focused the body to be moved. Im Hwa investigated how developing modes of production changes human emotions through creating poems, and Kim Nam-Cheon revealed the importance of the body to be moved in describing humans who became "chunks of meat" in the novel *Mool*. Further, the two writers shared awareness and critics of print media in that period. They recognized the body as a possibility for overcoming socialist repression by colonial authorities. Proletarian literature in the early 1930s shared the flow of the 1920s, focusing on subjects' emotions, and at the same time made a tremendous difference in how the literature aroused the issues of how the law and media pay attention to bodies, which encounter specific.

Key Word : Proletarian Literature, Emotion, KAPE, Im Hwa, Kim Nam-Cheon, body, cultural politics, the argument about Mool

최병구

소속: 연세대 국학연구원 연구원

전자우편: baius@hanmail.net

이 논문은 2017년 7월 28일 투고되어
2017년 9월 3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7년 9월 8일 게재 확정됨.